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



이상규(고신대학교 교수, 교회사학)

중세 하에서 교회 개혁을 외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 c. 1330-1384)였다.¹⁾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불리고 있는 그는 16세기 개혁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태어나기 1세기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기본사상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그를 개혁의 선구자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시기 교회개혁을 시도한 이들을 흔히 3부류로 나누는데, 왈도파의 사람들이나 위클리프 존 후스 등을 교리적인 개혁자라고 말한다. 반면에 사바나놀라 같은 이들을 실제적인 개혁자라고 말하지만,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나 토마스 아킴피스(Thomas Akempis), 존 베셀(John Wessel) 등을 신비적인 개혁자라고 말한다. 중세 신비주의자들도 스콜라주의적인 교권체제를 넘어 하나님과의 직교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세교회 구조를 혁신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개혁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쨌든 16세기 이전 중세 하에서의 개혁자들을 흔히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Pre-Reformers)이라고 말하는데, 필립 휴스(Philip E. Hughes)는 이들을

1) 위클리프에 관한 대표적인 전기적 기록이자 그와 그 시대의 활동과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G. H. W. Parker, *The Morning Star, Wycliffe and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65)를 참고할 것.

‘다리 놓는 사람들’(Bridge Builders)이라고 불렸다.

위클리프의 출생과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신비에 쌓여 있다.²⁾ 그의 출생에 대해서조차도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출생년을 1324년으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1328년 혹은 1333년으로 보는 이도 있고, 일반적으로 1330년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는 영국 북부지방인 옥셔이어(Yorkshire)주 힌스웰(Hipswell)에서 출생했다. 그는 옥스퍼드 바리올 대학(Balliol college)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 학생은 80여명에 불과했다. 1356년에는 머튼대학(Merton college)으로 옮겨가게 되지만 그가 옥스퍼드에 머문 기간은 11년이었다.³⁾ 1358년 석사학위를 받았고, 1372년에는 신학박사(Doctor of Divinity) 학위와 신학교수(professor of Divinity) 칭호를 받았다. 14세기의 당시의 professor라는 칭호는 박사 학위 수여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지금처럼 고정된 봉급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그것은 1430년 이후의 일이었다.⁴⁾ 어쨌든 그는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되었고 후일 학장이 되기도 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성장기에 어거스틴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쯤 그는 설교가로 그리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1376년에는 황실(에드워드 3세)의 궁정목사였다.

그가 교회개혁의 지도자로 등장한 때는 1374년경이었다. 이제 조용한 학자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고 14세기 당시 타락한 교회 문제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논쟁은 지배권(dominion) 혹은 주재권(lordship)의 문제였다. 당시 사람들은 지배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지배권은 어

2) 그러나 위클리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더 풍요로운 정보를 전해 주고 있다. 위클리프에 대한 평이한 전기로는, Douglas C. Wood, *The Evangelical Doctor* (Hearts: Evangelical Press, 1984)가 있다.

3) Douglas C. Wood, 11.

4) Douglas C. Wood, 39.

면 경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에게 주었고, 따라서 로마교황에 의해 지배권이 행사될 때 정당성을 가진다고 믿고 있었다. 즉 교황은 절대권자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은혜의 상태, 곧 심각한 죄를 범치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 리처드 피츠랄프(Richard Fitzralph)는 “왜 세속 통치자에게만 은혜의 상태를 요구하는가? 성직자들은 심각한 범죄 상태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⁵⁾ 리처드 피츠랄프는 위클리프의 스승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물이다. 피츠랄프의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도 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교회 개혁의 인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 첫 외침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교황의 지상권(至上權)에 대한 반대였다. 위클리프는 1376년 옥스포드에서 행한 강연이자 저술인 *De Dominio Civili*을 발표했는데, 흔히 ‘통치권에 관하여’(On Civil Lordship)로 번역되고 있다. 이 글에서 위클리프는 교회의 세속지배에 대해 비판하고, 또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소유를 비판하였다. 당시 영국에서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영국 전 토지의 거의 3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정부는 부패한 성직자의 재산을 압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이 통치자인 곤트의 요한(John of Gaunt)에게는 환영받을 요구였지만 교황으로 볼 때 위클리프의 주장은 반 교회적이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황은 1377년 18개 항목의 죄목으로 위클리프를 정죄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 곧 곤트의 요한이 위클리프를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아비뇽 교황에 대한 적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불화상태에 있었고 아비뇽교황은 프랑스

5) 브루스 셸리, 290.

왕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1378년에는 교황청의 분열로 이어져 두 사람의 교황이 각기 자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서 위클리프를 처단하지 못했고,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위클리프는 교회 개혁을 주장할 수 있었다.

통치권에 대한 위클리프의 생각은 '은혜에 기초한 통치권'이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당시 교회가 주장하는 사제의 중보적 역할이나 희생으로 드리는 미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140여년 앞서 만인사제직(Universal priesthood of believers)의 원리를 주장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간 소위 교황청의 바벨론 유수와 교황청의 대분열을 보면서 위클리프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다.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고 성경의 유일성과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제롬 혹은 그 어떤 성인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법이 최선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⁵⁾

교황의 지상권을 부인했던 그는 교회의 계급 구조를 반대했고,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은 미사나 면죄부 고행이나 선행 등 인간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와는 무관함 것임을 주장했다.

성례에 있어서도 그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부인하였고 성찬에서 분잔 하지 않는 일, 연옥설(purgatory), 면죄부(indulgences), 성지순례(pilgrimages), 성자승배, 유물승배 등을 비판하였다. 화체설을 비판한 일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1380년 빵과 포도주가

5) 브루스 셸리, 293.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주장을 12가지 이유로 비판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일로 옥스퍼드에서의 강의가 금지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다.

위클리프는 중세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혁신앙을 설파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유사했다. 특히 도덕적 공감을 일으키는 그의 가르침은 교회의 부유와 탐욕의 와중에서 사도적 청빈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그는 성 베드로의 의자에 앉은 자들은 베드로처럼 재물을 탐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청빈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교황의 세속지배, 세속권에 대한 권세를 포기해야한다는 가르침이었다. 교황이 권력을 탐하고 세속 지배권을 행사할 때 청빈한 삶을 살 수 없고 타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클리프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수장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교황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소박한 삶으로부터의 현저한 이탈임을 지적하였다. 위클리프는 중세 하에서도 성경의 교회, 곧 개혁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교회는 1377년 외에도 1378년과 1381년에도 위클리프를 단죄하고 처단하려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1378년 위클리프는 공직에서 물러나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주교들은 옥스포드대학에 압력을 넣어 위클리프를 위협하기도 했다. 1382년에는 위클리프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코티네이(William Courtenay)가 공의회를 소집하고 위클리프가 화체설을 부인하는 것 등에 대해 24개 항목으로 정죄하고 재판에 회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회의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 위클리프는 자신을 정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징으로 보았으나 코티네이는 땅이 더러운 이단을 몸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위클리프에게는 몇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치 루터에게 그러했듯이 정치적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의 다른 한 가지 공헌은 성경번역이었다. 그는 직접 라틴어 별게이트판을 영역하여(1382-84) 보급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영어성경인 위클리프 성경(Wycliffe Bible)이었다. 이 번역을 도운 두 인물은 Nicholas of Hereford와 John Purvey였다.

위클리프의 말년의 생애는 저술에 몰두한 시기였다. 1382년에는 뇌일혈로 쓰러졌고 1384년 두 번째로 쓰러졌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384년 12월 31일 예배 도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사후 헨리 4세와 5세는 그를 정죄하고 그의 모든 저서들을 소각하였으며 로랄드 운동을 저지시켰다.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소위 로랄드파(Lollards)⁷⁾ 혹은 로랄드운동(Lollard Movement)을 형성하였는데 옥스퍼드를 거점으로 한 이 운동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그의 제자들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사도적 청빈의 정신으로 전도하는 단체였다. 반 천주교적인 운동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로마교에 의해 1406년 반 이단법안이 통과되었고, 1409년에는 위클리프의 교리가 정죄되었으며 성경번역과 거리 전도를 금지하였다. 1415년에는 콘스탄츠회의에서 위클리프를 260개 종목의 죄명으로 정죄하고 그의 저서를 불살랐다. 그가 사망한지 44년 후인 1428년에는 교황의 명에 따라 위클리프의 유해를 다시 화형에 처했다. 이런 박해 하에서도 로랄드 운동은 꾸준히 계속되어 후일 영국의 개혁에 저류를 형성하였다.

7) 로랄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없다. 아마도 중세화란어 lollen 혹은 lullen(노래하다, 중얼거리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 로랄드파는 중얼거리는 자들(Lollards, -mumblers)로 불렸다. 또 어떤 이는 라틴어 lolia(가라지, 잡초)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1382년에 나타났고, 1387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